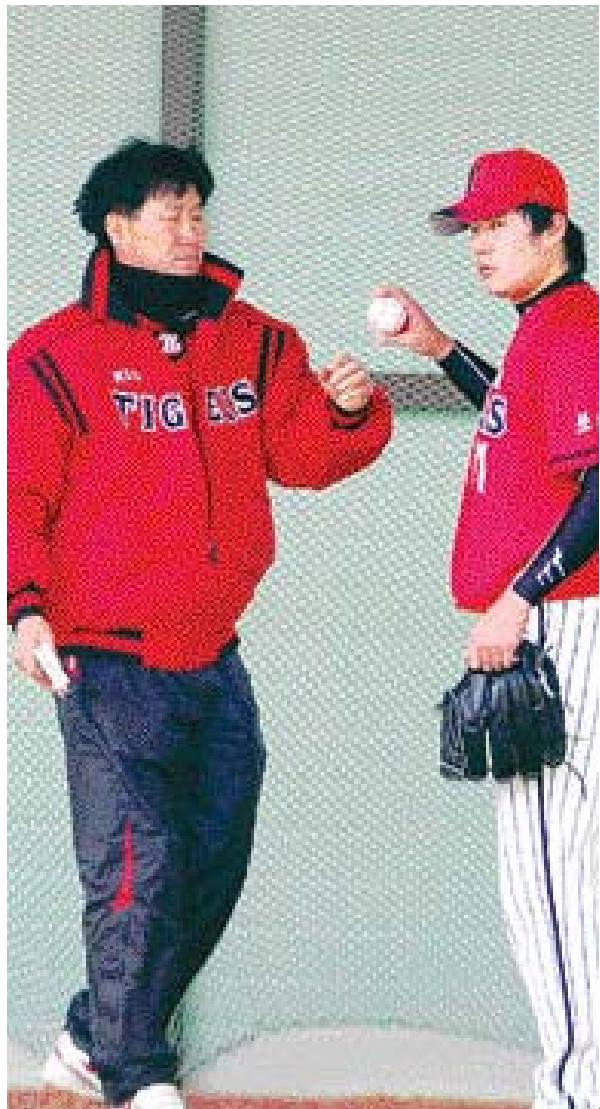


“좌완특급 호랑이 내가 키운다”

‘가을까지 캠프’ 차린 김정수 2군 투수 코치



선수→스카우트→지도자의 길

모교 진흥고서 4일 훈련 1일 휴식

임기준·박상혁 등 유망주 조련

‘가을까지’가 돌아왔다. 스카우트에서 현장으로 복귀한 KIA 김정수 2군 투수 코치가 ‘아기 호랑이’들 조련에 분주하다. 올 시즌 KIA 스카우트로 전국의 그라운드를 누볐던 김 코치는 지난 4일 2군 투수 코치로의 보직을 명받은 뒤 정성철·임기준·박상혁·양동일 등 투수진과 ‘4일 훈련 1일 휴식’로 테이션으로 12월을 보내고 있다. 오전 보건대에서 러닝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김 코치는 오후에는 모교인 진흥고로 자리를 옮겨 투수들의 피칭을 지켜본다. 선수들과 어등산 등지를 찾아 산행도 하는 등 ‘불펜 강화’ 특명을 수행하고 있다. KIA는 올 시즌 든든한 선발진을 내세워 12년만의 우승을 이루었지만 얇은 불펜 층은 약점으로 꼽힌다. 특히 불펜을 책임질 좌완이 없다는 것은 KIA의 큰 고민이다. KIA가 김 코치를 현장으로 다시 불러들인 이유다. 김 코치는 “불펜에서 활약해줄 좌완 투수가 없기 때문에 책임감이 크다”며 “당장 투입할 수 있는 선수 한 명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수들에게 희망을 가르치며 전반적인 선수층을 키우고 싶다”고 밝혔다.

스카우트로의 경험은 지도자 김정수에 값진 자산이 됐다. 김 코치는 “늘 유니폼을 입고 있다가 사무실에서 일을 한다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야구 전반적인 시스템을 살펴보고 다른 조직 문화를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또 프런트와 현장스태프의 고충을 이해하는 등 더 큰 눈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선수들을 보는 눈도 달라졌다. 스카우트로서 열악한 야구 인프라와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면서 선수들의 가치를 다시 생각할 수 있었고 이들을 진정한 프로로 재생산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지도자로 돌아온 뒤에는 ‘선수들이 나의 스승이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 김 코치는 “선수들을 통해서 나를 평가 받는 만큼 공부도 많이 하고, 어린 선수들을 상대하며 인내도 배우고 있다”고 밝혔다. 올 시즌 KIA의 우승으로 재조명을 받았던 이종한 명이 김 코치다. 한국시리즈 최다승(7승)에 빛나는 ‘가을까지’ 김 코치는 “통산 92승을 거뒀지만 선수시절이 화려했던 것은 아니다. 한국시리즈에서 강한 인상을 남기며 김정수라는 이름을 남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18년의 선수생활동안 9번 한국시리즈 무대를 밟았다는 것은 그의 가장 큰 자부심이다. 해태시절은 물론 2003년 SK 유니폼을 입고 한국시리즈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우승반지만 8개를 보유하고 있다. 김 코치는 “기록은 깨지라고 있는 것이지만 내 기록에 대한 자부심과 욕심이 있다”며 “한때는 정민태가 나의 기록을 깨지 않을까 마음을 졸이기도 했었다”고 웃음을 보였다. 한국시리즈 에이스에서 코치, 스카우트까지 다양한 야구 인생을 걸어온 ‘가을까지’ 김정수가 아기호랑이들을 앞세워 다시 한 번 마운드 점령에 나선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결승선 향해 질주

23일 서울 태릉 국제빙상장에서 열린 제36회 전국남녀 스피리트 빙상선수권대회 500m 남자부 스피리트에 출전한 서울시청의 이규혁(오른쪽)과 성남시청의 문준이 결승선을 향해 역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목포시청 축구단 오늘 출범

총 28명 선수단 구성… 내년 내셔널리그 참여

목포시청 축구단이 24일 오후 3시30분 목포 국제축구센터 대강당에서 창단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다. 2010년 내셔널리그에 참여하는 목포시청 축구팀은 지난 6월 영입한 김정혁 감독(전 전남드래곤즈 코치)을 비롯한 3명의 코치진과 선수 25명 등 총 28명의 선수단으로 구성, 시민들에게 첫 선을 보이게 된다.

목포시청 축구 선수단은 내년 초 N리그 및 컵대회 출전 등을 통해 축구 꿈나무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 줄 것으로 기대되며 국내·외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등의 촉매제 역할과 함께 내셔널리그 참여를 통해 ‘스포츠크럽도시’ 목표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창단식에서는 목포시립합창단의 축

하공연과 아트스커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린 하남진씨의 축구묘기 등이 펼쳐진다. 또한 목포시청 축구단 엠블럼 공개 및 선수단 소개 등 다채로운 행사도 꾸며진다. 목포시 관계자는 “목포시청 축구단 창단은 지난 2004년 목포시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국제축구센터를 유치하게 되면 실업팀을 창단하겠다는 약속을 함에 따라 이뤄진 사항으로 축구센터 유치 5년 만에 팀을 창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목표=임영준기자 lyc@kwangju.co.kr

‘8강 감독’ 홍명보·이광중 대상

대한축구협 2009 시상식 광양제철고 지동원 최우수선수상 영예



〈홍명보 감독〉 〈이광중 감독〉

올해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과 17세 이하(U-17) 월드컵에서 각각 한국의 8강 진출을 이끈 홍명보 감독과 이광중 감독이 나란히 대한축구협회 대상을 받았다. 또 지동원(광양제철고)이 남자최우수선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광양제철고 김인완 감독과 광양제철남초 김태열 감독이 남자 최우수지도자상을 각각 수상했다. 축구협회는 23일 오후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1층 홀에서 열린 2009 시상식에서 홍명보 올림픽대표팀 감독과 이광중 17세 이하 청소년대표팀에게 최고의 영예인 대상을 줬다. 홍명보 감독은 지난 8월 이집트에서 열린 U-20 월드컵에서 1983년 멕시코 대회 이후 한국 단일팀으로는 최고 성적

인 8강 진출 쾌거를 지휘했다. 이광중 감독도 U-17 월드컵에서 젊은 태극전사들을 이끌고 8강에 오르는 위업을 이뤘다. 남자 최우수선수에는 올해 고등학교 득점왕을 차지하고 소속팀의 왕중왕전 우승에 앞장선 지동원(광양제철고)과 이리동중의 김승준, ‘축구신동’ 백승호(대동초등)가 영예를 안았다. 여자부에선 이민아(포항여자전자고)와 이소담(현대정운중), 송지윤(강릉성덕초)이 각각 최우수선수로 뽑혔다. /서승원기자 swseo@연합뉴스

금호고 출신 기성용 셀틱 합류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셀틱FC로 이적한 축구대표팀 미드필더 기성용(20)이 소속팀 합류를 위해 23일 출국했다. 기성용은 이날 부모의 배웅을 받으며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스코틀랜드로 떠났다. 지난 시즌까지 국내 프로축구 FC서울에서 뛰었던 기성용은 셀틱과 내년 1월 1일부터 4년간 계약했다. 셀틱 입단은 빅리그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진출 목표를 이루려는 기성용의 선택이다. ‘데이비드 키’로 불릴 기성용은 셀틱에서 등번호 18번을 달고 뛰며 팀에 합류해 적응과정을 거친 뒤 출격 명령을 기다린다. 1888년 창단된 셀틱은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통산 42차례나 우승한 명문 구단으로 글래스고와 연고지이며 관중 6만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셀틱파크가 홈구장이다. 현재 토니 모브레이 감독이 지휘하는 셀틱은 시즌 10승3무3패(승점 33)로 글래스고 레인저스(승점 37)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기성용은 앞서 21일 진행된 입단 기자회견에서 “명문 클럽 셀틱에 입단하게 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뛰는 것이라 책임감이 크다. 스코틀랜드에 가서도 더욱 모범이 되고 우리나라를 빛낼 선수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시즌 목표에 대해 “많은 골을 넣으면 좋겠지만 포지션이 미드필더이니 만큼 동료에게 어시스트를 많이 하고 싶다. 다만 한 시즌에 5, 6골은 넣고 싶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축구대표 수비수 이정수 日 가시마로 이적

축구 국가대표 수비수 이정수(29)가 올해 일본 프로축구 J-리그 강호 가시마 엔트러스로 이적했다. J-리그 사상 처음으로 2007년부터 3년 연속 우승을 달성한 가시마는 22일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올 시즌 J-리그 교토 상가 FC에서 활약한 중앙수비수 이정수의 영입을 알렸다. 지난해 수원 삼성에서 뛰면서 K-리그와 리그 컵대회 우승을 이끌고 나서 교토에 입단했던 이정수는 올 시즌 J-리그 32경기에 출전해 5골을 넣었고, 나비스코컵 대회에서는 5경기를 뛰면서 1골을 넣는 등 맹활약했다. 또 한·일 프로축구 올스타전인 2009 조모컵에서는 J-리그 올스타로 나서 결승골을 뽑으며 최우수선수로 뽑히기도 했다. 이정수는 가시마 홈페이지에 “훌륭한 팀에서 위대한 감독, 그리고 수준 높은 선수들과 같이 뛸 수 있게 돼 영광이다. 내년에는 팀이 J-리그뿐만 아니라 아시아 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를 전했다. 가시마는 2010년 AFC 챔피언스리그에서 올해 K-리그 우승팀인 전북 현대와 한 조에 속해 있다. /연합뉴스

구원서, 역도 표주니어선수권 최우수

구원서(20·고양시청)가 역도 아시아 주니어선수권대회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대한역도연맹은 구원서가 인상과 용상 6차례 모두 성공한 데다 전체 출전자를 통틀어 최고의 중량을 들어 올린 점이 높이 평가돼 아시아역도연맹에서 선정하는 이번 대회 ‘베스트 리프터’로 뽑

혔다고 23일 밝혔다. 구원서는 전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대회 남자 105kg급에서 인상 151kg, 용상 205kg, 합계 356kg으로 금메달 3개를 목에 걸었다. 용상 205kg은 이번 대회에 출전했던 최중량급(+105kg) 선수들의 기록도 넘어서는 중량이며 한국 주니어 신기록이기도 하다. /연합뉴스